

놓칠 수 없는 유럽의 심장,

영국 런던은 더 이상 영국만의 수도가 아닌 유럽의 대표적인 수도로 자리잡았다. 영국은 18세기 우리나라보다 먼저 IMF를 겪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자존심을 구겼으나 이젠 금융, 서비스 산업 등에서 세계를 휘어잡으며, 다시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과 IT를 두 축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며 전 세계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글_ 공상문 (INKE 런던지부 부의장)

Middlesbrough

Nottingham

Liverpool

Manchester

Bristol

Dover

LONDON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어려운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인들에게 생소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 유럽의 심장, 영국 진출을 위해 알아둬야 할 영국인들의 소비성향과 기본적인 사업환경, 주요 산업에 대해 짚어보자.

영국인의 소비패턴 및 사업환경

대체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는 점잖고 보수적인 영국인들.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풍조는 술과 스포츠(축구, 럭비)에 열광하며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영국 왕실의 이야기 같은 가십거리를 좋아하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매거진이나 미디어다큐가 큰 인기를 끈다. 양심적(의미있는 곳에) 소비가 대세로, 과소비 풍조보다 검소한 소비패턴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오래된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 영국인의 전통적인 습관도 IT로 인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전 국민이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고령인 엘리자베스 여왕도 몇 년 전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개설했고, 2001년부터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래는 아이팟으로 음악까지 듣는다고 한다.

한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고, 외국기업에게도 자국기업과 같은 세금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영국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및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나라다. 영국인의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한국인보다 길지만 아직 한국만큼 IT산업이 발달해 있지 못하다. 이미 많은 IT기업들이 영국 진출을 하고 있고 유망한 모델로는 모바일, 게임, 패션, 레저, 하이테크산업, 환경기술, 석유화학 등이 있다.

세계 수준의 모바일 분야 경쟁력

영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를 꼽으라면 휴대폰 분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금융허브에서 IT강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IT를 통신과 게임, 여기에 기초 기술을 결합해 금융산업에 버금가는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려는 계획이 실현 중이다. 영국에서 IT의 기간산업 격인 모바일 분야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삼성, LG와 같은 제조업이 강한 우리와 달리 영국은 BT, 보다폰, BBC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과 방송사업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영국의 IT전략은 '개방과 협력'이다.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처리하는 것보다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부흥

통신과 함께 영국이 가진 또 하나의 IT 경쟁력은 게임 등 콘텐츠다.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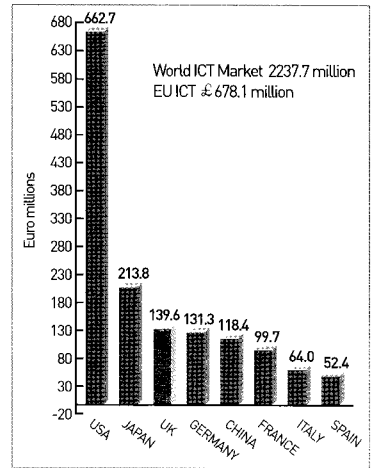
국은 전 세계 게임시장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게임 개발업체를 두고 있다. 영국 게임 시장은 지난 2004년도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만 20억 달러, 하드웨어 포함 37억 달러 규모로 유럽 최대, 세계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영국은 매년 게임 수출로만 15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 각국의 새로운 게임들의

유럽시장 테스트 마켓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넥슨 같은 한국 게임업체도 속속히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일렉트로닉아트(EA)·소니 등 수 많은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영국을 유럽시장의 거점 사업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창조 산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런던 올림픽, 한국 기업에 새로운 매력을 제공

지금도 영국, 특히 런던은 한국 기업의 전체 유럽 투자 금액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런던에 대한 투자 금액은 21억 6,000파운드에서 2006년 35억 6,000파운드로 증가했다. 실제로 삼성, LG의 신제품 테스트 시장이 영국이며 구주본부 및 디자인연구소를 모두 런던에 두고 있고 기타 150여 개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서울이나 법인설립환경도 유럽에서 제일 우수한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한 가지 있다. 바로 2012년 런던올림픽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런던의 경제는 4천만 파운드, 즉 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에 중국 역시 경쟁적으로 영국에 진출, 런던올림픽과 유럽,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런던을 거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벤처기업들도 적극적인 영국 진출로 런던올림픽이라는 매력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World's T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rket 2008. 출처: 유럽정보기술전략대EITO)

고객, 시장 및 자본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한 런던에 유럽거점사업 본부를 둔다면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인케 영국 런던지부에는 벤처산업협회 산하의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영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었다. 새해에는 유럽진출을 런던에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